

# 2월의 사양관리

5월의 사양관리

### ◆ 일반 사양관리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착유업무와 사양관리를 통해 일궈온 우리들에게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는 매서운 한파가 밀려왔다. IMF 시대에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및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 남기 위해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월간 납유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납유량을 생산하는 착유우를 정예화하여 착유두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육하고 있는 모든 젖소들은 개체별로 생산성 및 수익과 관련된 번식기록(임신, 발정상황, 수정횟수, 공태기간), 산유량, 산차, 유지율, 체세포수, 건강상태, 유방염 감염여부 등의 사항을 분석하여 경제성이 없는 개체는 선별하여 과감히 도태한다.

유질에 의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체세포수와 세균수 및 지방을 기초로 한 현행 가격체계에서 품질에 따른 우유 판매가격 차이는 kg 당 100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1일 1톤을 납유하는 목장의 경우 우유의 품질차이로 한달에 300만원의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1A 등급 우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세균수 관리 및 유방염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겨울철에 특히 유의할 것은 분만하는 모우가 추운 우사나 우사 밖에서 분만하는 일이 없도록 분만예정일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 또 추울 때 한밤중에 새끼를 분만한 후 그대로 2~3시간 방치해 두면 얼어죽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 ◆ 사양관리

어려울수록 원칙에 준한 사양관리를 해야 오히려 경제적이 될 수 있다. 사양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젖소의 소화생리 및 산유량과 유기에 따라 변동되는 영양소 요구량을 알고 있어야 한다.

대개 산유량에 따라 단순히 배합사료량만 늘려주는 사양관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우군의 경제수명이 어려운 시기에 큰 장점이려면 적절한 배합사료 급여량과 옥수수 사일리지, 볏짚, 그 외 농가 부산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이를 반추생리에 적절하

[자료제공 : 축산기술연구소 낙농과]



월간 납유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납유량을 생산하는 착유우를 정예화하여 착유두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육하고 있는 모든 젖소들의 개체별로 생산성 및 수익과 관련된 번식기록(임신, 발정상황, 수정횟수, 공태기간), 산유량, 산차, 유지율, 체세포수, 건강상태, 유방염 감염여부 등의 사항을 분석하여 경제성이 없는 개체는 선별하여 과감히 도태한다.



도록 관리하여 발굽질병 및 번식장애를 줄이고, 산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젖소는 분만후 산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사료섭취량은 서서히 증가한다. 따라서 비유초기에 있는 젖소는 심한 영양적 불균형상태에 놓이게 되며 불가피하게 자신의 체내 축적된 영양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체중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영양적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너지는 소화율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사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단백질 사료는 반추위에 분해가 적은 사료를 사용함으로써 건물섭취량 증가와 산유량 증가효과가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영양 불균형을 줄이고 적기에 수정시켜 수태시키는 일이다. 공태기간이 길수록 수익성은 떨어지므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하여 발정 조사와 수정적기에 수정하므로 번식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수태율이나 분만간격과 같은 형질은 유전적으로 개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 방역 및 위생관리

생산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이 줄어든 만큼 질병 관리에 더욱 유의하며 철저히 가축을 관찰하고, 환축우는 조기에 치료하여 약품비 및 폐사율을 줄이도록 한다. 질병에 걸린 젖소는 신속히 판단하여 치료와 도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 ○ 호흡기 질병 및 예방관리

어린송아지는 모든 생리기능이 약하므로 분만송아지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한다. 특히 찬바람이나 섯바람을 막아주고 보온이 잘된 축사에서 사양하며 충분한 깔짚을 깔아준다. 축사내는 청결하고 건조하게 해주어야 하고 공기가 탁하지 않도록 환기를 조절해주어야 한다. 축사내는 햇볕이 잘 들도록 하고 밀집 사육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소화기 질병 및 예방

조사료를 적게 급여하고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을 하면 산성증이 발생된다. 이로 인하여 생산성과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유지방 감소, 번식장애 및



#### 발굽질병까지

발생된다. 사료급여 중 적절하게 유효한 섬유소가 들어 있도록 관리하여야 농후사료 과다급여로 오는 대사성질병을 막을 수 있다.

#### ○ 발굽관리

젖소는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건강한 다리와 발굽의 사용이다. 대개 드러난 도태원인이나 질병 중 발굽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15~16% 정도지만 번식장애와 산유량감소의 원인이 된 발굽질병까지 감안하면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절한 발굽관리 위한 기준은

1) 불결한 주변환경을 피하고 건조하고 위생적인 환경 유지, 2) 양질의 조사료와 갑작스런 배합비 변경 지양, 3) 일정한 기준에 의한 발굽손질(년 2회), 4) 발굽 소독조 지속적인 사용, 5) 미량 광물질 및 비타민을 급여(아연, 망간, 구리, 코발트, 바이오틴)한다.

#### ◆ 초지 및 사료작물

확보된 조사료는 관리를 철저히 한다. 벧짚과 사일리지는 손실이 없도록 급여시와 보관이나 운반 할 때 손실을 방지한다. 지난 가을 새로 파종한 초지는 서릿발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진압작업을 하고 습지 저지대는 배수에 유의하여 동해를 방지한다. 들판에 있는 생 벧짚은 모두 수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필자연락처 : 041-580-3384)